

혁신 기업에 ‘성장 사다리’... 취약차주 ‘경제 복귀’ 팔 걷어

우리금융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과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을 결합한 ‘미래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전(全) 계열사 차원에서 9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집중됐던 자금 공급을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고, 저신용자·성실상환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90조원 가운데 82조4000억원은 생산적금융, 포용적 금융은 7조6000억원이다. 생산적 금융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인 첨단·전략산업 및 수출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도 구축한다. 포용적 금융은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및 경제 복귀를 돕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 편, 자금을 조기 집행해 지원에 속도를 낸다.



- 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본점에 위치했다.
- ②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열린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 ③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가 우리금융의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앞에서 두번째)이 지난 6월 개최한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금융·안승진 기자

④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해소와 취약차주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 ‘생산적 금융’으로 체질 전환

우리금융의 ‘생산적 금융’은 주담대·부동산 임대업 중심이었던 기존 대출을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대출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공급 목표액에만 중점을 둔 단기 전략이 아닌, 적극적인 체질 전환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비수도권 전략·핵심 분야에 필요할 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5000억원 규모의 ‘지역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전남 해남 태양광 사업과 전북 고창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자금을 출자했다.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검토 중에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도 힘쓴다. 우리금융은 우수 벤처·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투자, 스케일업, 기업공개(IPO)까지 전(全) 단계를 지원하는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지주사를 중심으로 은행·증권·캐피탈 등 계열사들이 협업해 우수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별로 단절 없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계열사의 체질 개선에도 힘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은행(I

B)그룹과 기업그룹에

투·융자 전담 조직을 각

각 신설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

직원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차원에서 명확한

취급 기준을 판단하거

5년 간 전 계열사 차원 90조 금융 공급
주담대·부동산 자금, 기업금융 중심 재편
생산적 금융 82.4조, 포용적 7.6조 편성
장기연체자·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지원
‘단계별 자금 공급’ 안정적 경제복귀 도와

나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곽성민 우리금융그룹 부사장은 지난달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은 단순히 저금리 자산의 양적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대출로 전환하는 리밸런싱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포용적 금융’으로 복귀 지원

우리금융의 ‘포용적 금융’은 장기연체자와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연체채권을 적극 소각해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중신용 대출을 적극 공급해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 창구도 늘린다. 성실상환자는 단계별 자금 공급을 통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금융은 총 9조6000억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 가운데 3조 50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조기에 공급한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조기 공급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생활비대출’을 운영해 저신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대출·신용대출도 적극 확대한다.

‘금리상한제’를 통해 중·저신용 차주의 연체 발생 가능성도 낮춘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금리상한제’를 도입해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금리 상한을 연 7%로 제한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에 노출되기 쉬운 중·저신용 차주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이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성실상환자를 위한 단계적 자금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 내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계열사 대출을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WON드림 갈아타기 대출’을 운영한다. 성실상환 고객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2금융권 대출 금리 평균보다 낮은 연 7%의 금리상한제를 적용해 이자부담도 크게 낮춘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